

제15차 교육 주간(2020.5.25-31.)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초대합니다

주 제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일 시 2020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30분

장 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https://www.youtube.com/channel/UCU0w-KsZ4QG5CnkjRNB85_g/?guided_help_flow=5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정기 세미나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오후 2시 30분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안녕하십니까?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정기 세미나가
2020년 9월 16일(수) 14:30 살레시오회 관구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 링크 주소: <https://bit.ly/eduseminar20>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사회: 박혁 변호사

시간	내용	담당(안)	비고
14:00-14:30	준비	담당	-
14:30-14:40	개회 기도	송동림 신부	한국가톨릭학교장회
14:40-14:45	환영사	문창우 주교	교육위원회 위원장
14:45-15:05	주제 발표	오지섭 교수	서강대학교 교수
15:05-16:05	사례 1(중등) Q&A	김윤옥 수녀	성심여자고등학교장
	사례 2(유아) Q&A	이미영 수녀	살레시오성미유치원장
	사례 3(학부모) Q&A	손서정 선생	가톨릭대학교 박사 과정
16:05-16:20	종합 토론	김경이 교수	가톨릭대학교 교수
16:20-	마침 인사, 기도	최준규 신부	교육위원회 총무

제15차 교육 주간(2020년 5월 25-31일) 담화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 예수님 찬미!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 교육 주간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정과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평화를 촉진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언젠가 아이들에게 평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한 거요.” “전쟁이 없는 거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가 좀 더 조용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바람과는 달리, 많은 가정과 학교에서 평화롭지 못한 모습들이 자주 보이며, 폭력적인 말과 행동, 이기주의와 무관심, 경쟁심, 비민주적 관계가 지배적인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평화는 인간관계가 지위와 서열, 돈과 힘에 따라 지배될 때 쉽게 깨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평화의 촉진자’로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평화를 촉진하는 일은 그저 시끄럽지 않거나 다툼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멈추지 않으며, 약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툼을 해소시키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서로의 대화를 진전시키는 ‘적극적 평화’를 조성하는 행동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평화를 “사람들의 선익(善益)을 보호하고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있어야 하며,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을 중히 여기는 형제애(兄弟愛)의 끊임없는 실천”(2304항)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친애하는 교육자와 학부모 여러분,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담당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와 사회의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인

제15차 교육 주간 담화

내를 가지고 기다리며, 먼저 아이에게 다가가서 진심 어린 대화를 꾸준히 시도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자애와 존중이 담긴 대화에서 시작되며 온유와 인내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전쟁의 상처로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천하기]

1. 학교와 가정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합니다.
2. 학교에서 평화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 행사를 시행합니다.
3. 가정, 학급, 학교 차원에서 평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장소(예: 전쟁 기념관, 독립 기념관, DMZ[비무장 지대], 평화 누리길 등)를 방문합니다.
4. 가정과 학교, 사회와 세계가 더 큰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2020년 5월 교육 주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

환영사

평화를 위한 대화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올해 교육 주간은 주제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문의 제목은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문헌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도 아니고, 적대 세력들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선익 보호, 사람들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사람들과 민족의 존엄성 중시, 형제애의 끊임없는 실천 등이 없이는 평화는 지상에서 실현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정의의 열매이고 사랑의 결과입니다.

평화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서로 갈라놓는 분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18 참조).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으로 화해한 한 가족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거저 받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떠맡아야 할 과업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는 스스로 교육하여, 연민, 연대, 협동, 형제애,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을 배워야 합니다. 국가적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각성에 관심을 가지고, 부의 재분배, 성장 추구, 개발 협력,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모든 이를 위한 평화는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정의를 촉진해야 하는 본질적 임무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이상을 힘차게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각별히 권유합니다. 비록 시류를 거슬러야 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무엇이 정의이고 진리인지 알아보는 힘을 기르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평화의 대의를 간직한 온 누리의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평화는 이미 얻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더 큰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여정에서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세상이 더 인간답고 형제애 넘치는 얼굴을 지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하여 공동 책임

문창우 주교

감을 가집시다. 특히 미래 세대가 평화의 거래가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여기엔 대화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대화는 개방성과 환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다름과 특수한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합니다. 또한 대화는 상대방을 이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공헌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진리와 정의 앞에서 책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는 인간 생명의 존중에 의지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을 맞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어느 때보다 힘차게 내디뎌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난 이데올로기 때문에 생긴 이념 분쟁이 아닌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문화에서 키워진 평화의 열매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 창 우 주교

오지섭 교수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2020년 정기 세미나

차례

1. 평화 교육 관련 기존 논의
 - (1) 주요 논의 사항
 - (2) 한계와 발전적 방향 설정

2.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구체화 방안
 - (1) '가톨릭다운' 평화 개념 설정
 - (2) '가톨릭 학교 교육다움'이 평화 촉진의 근간

1. 평화 교육 관련 기존 논의

(1) 주요 논의 사항

- 평화 교육(특히 학교 평화 교육)의 중요성
 - 반평화적인 학교 현실
-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 평화 감수성
- 부분적 평화 교육이 아닌 전체적으로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 (문화) 조성
- 총체적으로 평화의 문화가 모든 교과 과목과 교과 외 활동에 스며드는 것이 필요

(2) 한계와 발전적 방향 설정

평화 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평화 교육에 관한 이론적(원론적) 제시는 충분

앞으로의 발전적 논의는 평화 교육 실현(평화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모색

(특히) 평화 교육을 위한 가톨릭 학교의 각별한 사명과 역할 논의와 실현 방안 모색

2.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구체화 방안

(1) '가톨릭다운' 평화 개념 설정

○ '가톨릭다운'

- 내용과 방법 모든 면에서 가톨릭의 진리에 부합하는 것

○ 가톨릭의 진리에 부합하는 평화 개념

- 하느님 나라: 'already, not yet' '지금 여기'
- 평화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상태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완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 '주어진 상태': 가능성. 회복

○ 가톨릭다운 평화 개념의 구체화 : 김수환 추기경의 평화 개념

- 김수환 추기경의 실천적 영성 → 평화

“평화는 결코 단순한 이론이나 학(學)으로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실천적 운동 또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요한 갈통)

① 참 평화와 거짓 평화 구분

참된 평화는 마음의 평화, 진리에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② 참 평화는 '인간다움'이 온전히 실현되는 상태

인간 존엄성과 인간 권리 존중, 사회 정의가 평화의 토대

③ 참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실천'

날마다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미소 하나일지라도 사랑을 실천

④ 추상적이거나 내세적인 평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현해야 하는 현실적 평화, 일상생활 속의 평화

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현

사랑의 주인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참 평화 실현

- 김수환 추기경의 삶에서 확인하는 평화 실천의 방법

: 일상 삶 속의 작은 실천 / 나로부터의 변화

- 김수환 추기경이 제시하는 평화의 원리

: 가톨릭의 핵심 가치 → 보편적 개념(인간다움 등)으로 제시

(2) '가톨릭 학교 교육다움'이 평화 촉진의 근간

○ 가톨릭 학교 교육의 현실적 어려움

- 한국의 사회 교육 현실 속에서 가톨릭 학교 교육 운영의 딜레마

: 현세적 가치 추구 vs. 가톨릭의 진리 추구

- 현실적 재정의 어려움

○ 그럼에도 가톨릭 학교 교육은 '가톨릭 학교 교육다움'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 가톨릭 학교만이 아닌 교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 필요

○ '가톨릭 학교 교육다움'

- '~다움': 정체성, 본질 확인 → 실현을 위한 노력

- 무엇이 '가톨릭 학교 교육다움'인가(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깊은 통찰 필요

- '영성'이 학교와 교육 전반(교육 목표, 교과 내용 구성 및 운영, 학교 문화 등)에 일관하는 것, 그래서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가톨릭 학교 교육다움

- 영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톨릭 학교를 '유별난' 학교로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삶이 현실 삶의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이러한 영성 강조 교육이 가톨릭 학교 교육다움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톨릭 학교는 다른 일반 학교와 교육이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의미 있는 교육적 시도를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교회 전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 이렇게 가톨릭 학교 교육이 세상과 시대의 변화를 선도

오지섭 교수

: 종교화 (cf) 세속화논쟁

세상의 복음화

평화를 촉진하는 가톨릭 학교 교육

학교 현장에서 실천하는 평화교육

- 성심교육철학의 맥락에서 -

I. 들어가는 글

지난해 12월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는 가톨릭학교법인을 통해 한국의 가톨릭 학교에 2020년 교육의 주제가 ‘평화’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교회의 교육 위원회에서 2019년 가톨릭교장단 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해주신 덕분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모든 가톨릭학교들의 2020년 교육과정에 ‘평화’의 내용을 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화’를 주제로 학교에서 실천 사례를 발표하라고 하니,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의 수요일부터 멈추었던 미사가 부활을 맞아도 여전히 멈춘 상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희망과 기쁨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로 주신 문서에서 평화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떠맡아야 할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문헌에 따르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의 열매이며 사랑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의 일꾼은 1) 하느님께서 각 인간에게 새겨놓으신 것을 존중하는 개인적 응답, 2) 연민, 연대, 협동, 형제애, 능동적인 공동체 활동들, 3) 국가적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각성과 관심으로 부의 재분배, 성장추구, 개발협력,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한국전쟁 70주년, 4.19 60주년, 5.18 40주년의 역사적인 자리에서 미래세대가 평화의 겨레가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교육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성심수녀회 수녀로서, 교회에서 제시한 평화의 정신을 성심수녀회의 교육 철학 안에서 이해한 바를 찾아보고, 성심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실천해온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II. 성심교육과 평화교육

성심수녀회는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불신과 반종교적인 성향이 지배적이었던 1800년대 프랑스 파리에서 “예수성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리는” 사명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방법으로 교육,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4서원으로 봉헌하는 국제 교육 수도회이다. 성심수녀회의 창립자인 성녀 마들렌 소피 바라 수녀는 청소년 교육을 통해 예수성심의 사랑을 알리고 전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였다.

1. 여성 교육

바라 수녀는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종교와 성체에 대한 모독’에 대항하여, ‘흠숭’과 ‘보상’의 정신으로 이 세계에 하느님의 참된 의미를 다시 심고자 하였다. 그녀는 ‘수도자로서의 봉헌’을 통해 상처 입은 예수성심과 성체에 대한 ‘흠숭’을 실천하려 하였으며, 세상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게 될 ‘청소년 특히 여성교육’을 통해 가정과 사회를 재건함으로써 ‘보상’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 우리가 성체 흠숭을 계속하기 위해 기도대를 지킬 24명의 수녀들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많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숭고한 목표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흠숭과 보상의 정신을 가르친 젊은 학생들이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때 나는 교회 위에 세워진 이상적이고 우주적인 성광 앞에서 수백 수천의 흠숭자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즉, 이 고독한 제대 앞에서 우리는 젊은이의 교육에 우리 자신을 바치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 대한 생동하는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그들의 영혼 속에 다시 심어주어 불경건을 초래한 장세니즘의 흔적들을 없애려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나라에 수많은 무리의 흠숭자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성심수녀회, 「수녀님의 추억」, 제1권, 422, 『은사』, 45쪽에서 재인용).

19세기 일반적인 여성교육은 학생들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 편지를 잘 쓰고 교양 있게 얘기를 잘하는 것 정도였으나,¹⁾ 바라 수녀는 젊은 여성들

1) “롤랭은 ‘여성들이란 국민들을 가르치고 국가를 경영하며, 전쟁을 하고 판결을 내리며, 대의명분을 주장하고 의학적 치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여성들은 단지 집에 머물며 보조 역할을 하고 단순한 일을 하는 부드럽고 섬세한 존재라고 보는데, 이는 19세기 당시 여성 교육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C. Rollin, Tracté des Études(교육 개론), tome I, Livre premier, chapitre II, De l'éducation

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성심교육 지침서』(Plan of Study)에 따르면,²⁾ 여성으로서 지성과 정서 발달에 유의하여, 모든 학습에 수반되는 지적 활동을 통해 판단력과 비판력을 기르고 지식을 넓혀 가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자신이 속해 있는 우주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수사학, 물리학, 천문지리학 등 남학생을 위한 교과목을 대담하게 선택하거나, 여학생들에게 맞게 새로운 교과 과목을 선택하거나 축소하였던 점, 성장 단계에 맞춰 교육계획을 잘 조직함으로써 젊은 여성들이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마리 프랑스 까렐, 『성녀 소피 바라의 성심교육전망』, 70 참조).

나아가 바라 수녀는 교육자란 학생들의 내면 깊이 있는 싹과 같은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을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녀에게 교육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사업이었다.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는 것이며,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혈로 구원받은 영혼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남을 영혼을, 즉 하느님의 자녀를 본다.”는 뜻이다(성심수녀회, 「1815년회헌」, 349번).

“아이들을 존중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이 작은 피조물의 영혼을 존중합니다. 이들은 이성을 깨우치고 그 판단력을 발휘할 때가 되면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Pedrau, 「수녀님의 추억」, 제1권, 254-255, 『은사』, 201쪽에서 재인용).

따라서 성심교육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특히 여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평화교육의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의 보수적인 환경에서 제시되는 여성의 모습을 넘어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 신앙에 기초한 정의교육

바라 수녀는 예수성심에 대한 흠숭과 보상의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프랑스 사회의

des filles(여학생 교육), 75; 재인용 『성심교육전망』, 69.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라틴어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라틴어와 철학은 여성을 깨어나게 하는 위험한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이 지침서는 1804년 바라 수녀가 저술한 성심교육을 위한 기본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우르술라 수녀회(Ursuline)와 씨스터시안 수녀회(Cistercian)가 경영하던 학교의 지침서와 예수회 학교의 지침서(Ratio Studiorum)들을 조화시켜 구성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1804년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1806년, 1810년, 1816년에 점차적으로 수정 보완되었고, 1928년 이후 발달된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명칭도 『성심교육정신과 학습계획』(Spirit and Plan of Study)으로 바뀌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전 세계 성심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주었다.

교육 결핍에 대해 응답하고자 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아이들이 삶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마련된 무상학교는 기숙생들의 학비로 마련된 물자들 운영하였다.³⁾ 이것은 당시 계층의 경계를 넘어선 응답으로, 19세기 사회의 불평등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무상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직업교육, 고아원, 장애인학교, 교육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하였다.⁴⁾

“가난한 사람들에게겐 원조의 결핍이 없는데, 사회 지도층은 아주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고아들을 위한 사업과 빈민자를 위한 사업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녀회의 첫 회원들의 눈길을 끈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게 될 것이기에 더욱 견고한 크리스찬적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위험들 앞에서 자신을 굳세게 지키기 위해 좀더 확고한 신심을 가져야 합니다”(아미앵 기숙사 사감들에게 하였던 영적 강좌, 『은사』, 192쪽에서 재인용).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0-1965.12)는 성심수녀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⁵⁾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원천으로 돌아가 창설자의 은사에 충실하고 수도생활을 쇄신하라는 요청을 받은 수도회들은 창립 회헌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헌을 쓰고 새로운 생활 형태를 마련하는 등 큰 변화와 쇄신, 적응과 개혁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성심교육은 예수성심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본 정신이 더욱 강조되었다. 동시에 현대 사회에 적응하는 교육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세상의 긴급한 필요와 지역교회의 부름에 창의적으로 응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공의회 이전까지 ‘성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획일성을 벗어나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시작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성심교육은 교육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3) 1801년 10월 아미앵에서 첫 학교를 시작한 이후 1802년 1월부터 무상학교가 시작되었다. 1808년 나폴레옹 1세가 프랑스 내 수녀회의 물자와 인원 상태를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프랑스 뿌아띠에 성심수녀원이 ‘젊은 여성을 위한 그리스도교 교육 수녀회로서 특히, 빈민층 소녀들의 무상교육을 위해 바쳐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1865년 마들렌 소피 바라 수녀 바라 수녀의 임종 당시 89개의 수녀원 중에 84개 학교가 기숙사를 가졌으며, 74개 학교가 무상학교를 운영하였다. 인원수는 기숙생이 3,700명, 무상학교 학생이 5,700명이었다. 『은사』, 193-194쪽 참조.

4) 직업교육으로는 1808년 그로노블의 장갑 제조 기술센터, 1845년 튀랭의 가정 일에 대한 교육 학교 등이 그것이다. 고아원은 1832년부터 1838년까지 콜레라 전염병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자, 미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워 1865년 18개 고아원에 380명을 수용했다. 장애인학교로는 1850년부터 상베리에 농아학교가 세워졌고, 1823-1844년까지 파리의 봐렌스가에 지체 부자유아를 위한 의무실이 있었다. 교육대학은 1836년 뵘스루에, 1854년 칠리의 싘띠야고에 초등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대학이 시작되었다. 『은사』, 194쪽.

5) 1963년 제3차 회기에 공의회 공적 참관자로 참석한 성심수녀회 총장 드 발롱(de Valon) 수녀는 이 회의에서 새로운 성령의 기운을 받고 수녀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67년 특별총회, 1970년 총회를 통해 성심수녀회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드러나는 ‘보상’의 정신을 우리가 마주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정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 선택’(Option for the poor)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 역시 ‘정의의 부르심’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의 마음은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인간관계에서 전인적 성장과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성심수녀회 총회 문헌 모음』, 134-135 참조).

이어진 1976년 총회와 1979년 관구장회의를 통해 성심수녀회는 성심교육이 ‘신앙에 기초한 정의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성심교육의 구체적인 다섯 가지 지침을 “신앙 교육, 학문 교육, 정의교육, 공동체 형성 교육, 인격 교육”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82년에 작성된 새 회헌에서는 성심수녀회의 교육사명이 성심수녀회 은사의 근원적 요소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구체적 실천방법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특은에 따라, 우리는 예수 성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봉헌되었다. ‘…… 중략 …… 우리는 교육에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에 참여한다. 교육은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는 우리 고유의 방법이다. 이 교육과 가르침을 통한 봉사를 우선적으로 젊은이들, 그리고 세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에게 바친다”(1982년 회헌 4번, 7번).

3. 정의평화창조계 보전(JPIC)을 위한 교육

성심수녀회는 이후 1988년 총회를 통해 심각한 전환기를 거치고 있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더 깊이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차원에 대한 확인, 젊은이와 가난한 이들, 여성과 이주민은 물론, 창조물 전체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1994년 총회는 세상의 가장 절박한 필요에 새로운 긴박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교육의 일이라고 보았다. 즉 세상은 깊이 상처받아 갈라져 있으며, 급속히 변화하며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희망의 표지이다. 따라서 성심교육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 지구에 대한 존경심, 진리에 바탕을 두고 갈등과 고통을 마주하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정의를 교육’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심교육이 ‘생명이 위협받는

곳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새로운 형태로 드러나는 곳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화해를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2000년 총회는 기쁨과 희망, 고통이 공존하는 세상 안에서 '교육은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이며, 변혁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우리 사이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공동협력을 통해, 각 문화 안에 현존하는 성령에 마음을 열고 경계를 넓혀가도록 촉구하였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교육이 '변혁의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 소외된 사람, 불의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2008년 총회는 '교육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의 행위'이며, '가장 상처받기 쉬운 이들과의 연대 속에 이루어지는 정의 평화 창조계 보전'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또한 젊은이들이 정의에 대한 열정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도, 주변으로 밀려나 길을 잃고 세상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교육자의 마음'으로 응답하고자 하였다. 또한 젊은이들이 자기 삶의 주체이며,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2016년 총회는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받는 부르심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동행하기 위해 '새로운 변방으로 나아가기', 파견된 자리에서 더 단순하게 '더욱 사람답게 살기', 성령의 활동에 귀 기울이고자 '고요히 침묵에 잠기기',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한 몸으로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2018년 정의평화창조계보전 백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봉사하는 세상이 '축복이자 상처 입은 세상'이며 우리는 교육적 봉사를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장인'(匠人)으로 살아가도록 제시하고 있다.

Ⅲ. 성심학교에서의 평화교육 실천 사례

1. 그리스도교적 가치에 근거한 인간 존중 교육

성심교육은 그리스도교적 신앙교육을 기초로 한다. 이것은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남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 아침 명상을 통한 성찰의 태도 기르기(JPIC 명상, 시 명상, 역사 명상 등)
- 그리스도교 전례를 통한 그리스도교 가치 학습(대림, 사순, 부활, 성모 성월 등)
- 질서와 예절을 바탕으로 한 상호존중의 태도 기르기
- 정서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태도를 지원하기(소피 공방)
-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통한 정서적 지원

2.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

성심교육은 수업을 통해 진리에 대한 탐구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요청되는 지적인 성실함과 열린 마음을 기르고자 한다. 이것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갖기 위해 실력을 기른다는 뜻이다. 여성으로서 지성과 정서 발달에 유의하여, 모든 학습에 수반되는 지적 활동은 스스로 사물을 생각하는 사고력과 판단력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협력과 존중을 배우는 수업
- 깊이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탐구학습
- 인문학적 기초를 강화하는 나눔과 학습
- 다양성을 지원하는 학습

3. 연대와 연민, 협력의 마음을 키우는 공동체 교육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됨됨이와 각자가 가져오는 바를 환영하고 공유한다. 이것은 신뢰와 상호지지, 영향받을 수 있는 자세, 개방성의 태도를 요구한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며 함께 새로운 가

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유연한 자세와 상상력을 기른다(2000년 총회 27 참조).

- 특수학급 학생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하는 기도와 전례
- 올바른 관계형성을 지원하는 수련활동(입학 전 적응교육, 수련활동 등)
-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와 방법의 중요함을 배우는 학생 활동
- 각 개인의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동아리 활동
- 사회적 경제를 배우는 학교협동조합(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축제, 공정무역 등)

4. 화해와 정의 평화 창조계 보전(JPIC)을 실천하는 정의교육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가난과 불평등, 배제와 폭력, 그리고 환경 파괴를 깊이 체험하였다. 우리는 전 지구적 현실들의 상호연계성을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에 따른 세계화의 결과가 초래한 소외현상과 지배와 배제의 문화를 더욱 의식하게 된다. …… 우리에게는 모든 교육적 노력들을 평등하고 모든 이를 품으며 비폭력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쪽으로 향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는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가 생명, 고통스런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심오한 소망임을 믿기 때문이다(2008년 총회 26-27 참조).

-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활동
- 세상과 역사를 바로보기 위한 명상(3.1운동, 임시정부 수립, 4.19, 5.18 등)
- 화해의 사절이 되는 한일교류
-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캄보디아 체험학습
- 지구 살리기, 에코마당

IV. 평화교육을 위하여

평화는 이미 얻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평화를 표현하는 말 ‘shalom’은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교육, 특히 그리스도교 교육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으로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삶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개인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정의와 평화에 찬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삶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이 온전한 삶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에 따르면, “단순한 지식전달, 기계적으로 외우기, 그리고 그 외운 지식을 뱉어내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배울 수 없다. 진정한 배움은 진리를 억지로 집어넣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스스로 찾아낼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교육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세상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진정한 배움으로서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된다. 이 진정한 배움을 통해 아이들은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이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 이루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톨릭교육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을 교육의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는 보편적이며 일상적인 삶을 통해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살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학교가 닫히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갖게 된 학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질문은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만남이 갖는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사를 통해서, 교사가 학생과 소통하는 방식, 존중의 태도, 위기를 다루는 방식, 교사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배웁니다. 따라서 교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변혁적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도록 이**

끌어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을 넘어,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 설 줄 아는 보편적인 시선, 불의에 대한 비판적 안목, 정의를 실천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창조계의 온전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쟁을 멈추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가난과 물질적 풍요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아직까지 신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어디를 가더라도 기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는 것”(뮤리엘 레스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평화교육에 대한 성심교육의 사례들이 성심만의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각 학교의 상황에서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바로 우리 가톨릭학교로서 교회가 부여한 복음화의 사명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존중, 공동체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 세상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키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톨릭학교가 아니어도, 모든 학교가 가지는 ‘전인교육’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가톨릭학교의 고유함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아이들이 단순히 ‘전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이들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가톨릭교육은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삶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은총 안에서 우리 자신과 아이들 모두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속적인 평화를 세우는 것이 교육의 몫이다.” - 마이라 몬테소리

지금, 여기에 심고 가꾸는 ‘평화 이야기’

I. 평화: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의 꿈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평화를 원하고 꿈꾸며 평화를 희망합니다. 하느님의 협력자인 인간은 하느님께 받은 이 평화의 선물을 가꾸고 돌보고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명을 받았습니다. “평화는 소중한 선(善)입니다. 평화는 우리 희망의 대상이고 온 인류 가족의 열망입니다. 평화를 향한 희망은 실존적 긴장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평화를 희망하지 않으면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2020.1.1.).

“개인에게 평화가 없다면, 곧 각자가 자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공동선의 촉진을 위해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지상의 평화』, 165-167항). 전쟁이나 갈등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가 평화의 기본적인 의미라면 인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벌어질 일들이 벌어지는 절망과 삶의 모든 배반, 오해와 다툼과 고단함 그 한가운데서도 이 화목함과 평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는” 믿음으로서만 얻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에페 2,14)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현대 문명은 화려하게 발전하고 있어 자칫 평화를 건설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는 핵무기, 테러, 전쟁, 기아, 자살, 낙태, 기후 위기, 이주민과 환경 난민의 증가, 인종 차별, 성적인 착취, 각종 전염병, 저출산과 고령화, 식량난과 물 전쟁 ……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많은 생명과 사람들의 죽음의 희생을 치른 뒤에야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평화는 인간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만을 위한 발전에 전력을 다해 오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지우고 문명의 발전이라는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피조물의 자리를 빼앗고, 바꾸고, 마구 뒤섞고, 조작하고, 옮기고, 없애고, 쓰레기로 버리면서 그 신비의 질서를 무참히 훼손한 것입니다.”(이미영, 2020.4.26., 가톨릭 신문) 자연과 모든 생명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주 모든 가족의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열매 맺는 평화는 하느님의 꿈입니다.

II. 생명·평화교육과 평화통일교육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0년 1월 1일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라는 평화의 담화를 통하여 모든 피조물과 함께하는 평화가 완전한 평화이기에 하느님 닮은 인간은 이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교육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0년 1월 1일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평화를 이루려면 피조물을 보호하십시오.”라는 평화의 담화로 우주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지금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피조물과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온 결과임을 인식하고 모든 피조물과의 전쟁을 철회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긴급한 시기에 서 있기에 이 평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피조물에게 질서를 훼손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청하고, 분노에 찬 바이러스를 위로하고 진정시키면서 평화협정을 맺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모든 국가가 국제적인 연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각기 분열되어 함께 멸망할 것인가 선택의 귀로에 서 있습니다. 도려내고, 잘라 내고, 바꾸는 방법은 일시적으로 부분만을 치료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지만, 원인을 파악하고 각국이 연대해 전체적인 접근으로 과감하게 되돌아선다면 후손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세상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이미영, 2020.4.26., 가톨릭 신문).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라고 당부하셨지만 스승께서 주신 이 평화를 잃어버린 제자들이 배반의 죄와 절망의 늪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 하고 인사하시며 평화의 일상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부활의 열매인 평화로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 공유하고 성장시켜 모든 피조물과 후손들과 함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Ⅲ. 유아 교육 기관에서 평화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Vygotsky는 “인간의 어떤 기능은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사회적 패턴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에 도움을 주고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동과 성인, 또는 아동들 간의 집단적인 활동, 곧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고 하였습니다. 평화는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는 교육을 통하여 더욱더 가치 있게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는 지금, 여기 나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들과 하나로 일치되어 가는 것이기에 생명·평화교육은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소중한 교육 내용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로서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의 과업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에 평화 통일교육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평화교육은 특별히 인생의 뿌리를 다지는 유아기에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길러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의 기반을 이루는 민주 시민 교육은 유아기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 시민적 특성과 관련된 친 사회적 행동 특성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타나는 발달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조기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또래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곳입니다. 다른 유아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함께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개인적인 문제와 공공의 문제를 구별해야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교육기관은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아들에게 특별히 그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요구됩니다. 통일교육은 단순한 인지적 교육을 통해서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 교육의 모든 형식적 교육 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IV. 평화교육 내용

1. 사물과의 우정을 통한 평화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이 있는 이유와 고마움을 알고 제자리에 정리할 줄 안다. ▶ 사물과의 만남을 통하여 감사와 나눔을 배운다. ▶ 사물을 끝까지 사용하고 쓰레기를 적게 만든다.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을 사용하는 방법의 교육에서 사물을 만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사물을 인식하고 만난다. ▶ 사물과 친해지면서 사물이 주는 고마움을 찾아낸다. ▶ 선물이 되어 주는 사물에게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 사물과 우정을 다지면서 깊은 이야기를 찾고 사물이 소명을 다할 때까지 사랑한다. ▶ 사물에게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론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의 고마움을 찾고 다양한 방법으로 고마움에 대하여 친절하게 표현함. ▶ 새 물건을 자주 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함. ▶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 사물과의 이별식과 새로운 사물에 대해 환영식으로 확장.

2. 자연과의 우정을 통한 평화교육

1) 정원과 텃밭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알고 돌봄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낀다. ▶ 자연의 섭리를 느끼고 흙과 모든 것에 고마움을 알고 표현한다. ▶ 계절과 절기의 변화를 알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운다. ▶ 농사짓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음식의 소중함을 안다. ▶ 연령에 따라 마음 발과 마음의 씨앗 활동으로 확장한다.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정원의 꽃들과 식물들과 만남 활동으로 신비를 만난다. ▶ 학급별로 어린이들이 심고 싶은 씨앗을 결정한다. ▶ 흙 만나기→씨앗 만나기→씨앗 심기→돌보기→숙아 내기→작물에게 수확 준비시키기 → 수확하기→흙에게 고마움 표현하기→요리 활동→나눔의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 수확물로 다양한 요리활동이나 나눔 등의 확장 활동으로 연계한다. ▶ 가정연계활동: 가족이 함께 가을에 무와 배추 수확하며 가난한 사람 돕기 성금을 하고 가정에서 요리 활동을 통하여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며 각자 반에서 활동을 나눈다.
관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알고 돌봄의 능력을 깨움. ▶ 농사짓는 분들의 노고를 알고 먹기 힘들었던 음식도 남기지 않고 기쁘게 먹게 됨. ▶ 우리의 마음 발과 마음의 씨앗이 함께 자라남을 연결하여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음. ▶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앎.

2) 가족이 함께하는 지구살리기축제

자연과의 우정과 더불어 이어지는 지구 살리기 활동은 연중에 계속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불편함을 축제로 이어가고자 1년에 한 번은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지구살리기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목적	기후 위기 때문에 “공동의 집”인 지구가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하여 삶의 자리에서 불편함을 즐겁게 선택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족이 함께 확고하게 한다.
----	---

활동명(활동 내용)	
사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참여 동의서, 사전 활동과 활동 책자 가정 배부. ▶ 가정연계활동: 지구살리기를 위해 불편함 실천 빙고 활동(월 1회)과 우리 가족 지구 살리기 실천 이야기 소개(주 1회) / 지구 살림 포스터, 동시, 우리 가족지구살리기 비법 소개판 등, 사전 활동 작품 제작
본 활동	▶ 부모 교육의 자리 활동을 시작하기 전 지구살리기의 의미와 자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
	▶ 일회용품 이별 자리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고 함께하는 자리
	▶ 흙과 나무사랑 자리 모든 생명의 근원인 흙과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가족이 함께 찾아보고 실천하고자 약속하는 자리
	▶ 물사랑 자리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물의 소중함을 알고 물사랑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
	▶ 에너지사랑 자리 에너지 절약의 이유와 함께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실천을 약속하는 자리
	▶ 지구사랑 자리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기억하며 또한 모든 지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며 실천할 방법을 찾고 약속하는 자리
	▶ 나눔의 자리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고 나누는 자리
	▶ 작품의 자리 가족들이 사전 활동으로 보내 준 지구살리기 이야기 작품들을 전시하고 나누는 자리
사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평가지)를 수합하여 학부모 평가 내용을 평가 시 반영함. ▶ 가정에서 보내 준 지구살리기 작품을 '아침 인사' 방송 때 한 가족씩 소개하고, 등·하원 길에 지구 살림 소개 자리에 게시하여 다른 가족들이 축복과 사랑 나눔. ▶ 가정 연계 활동: 지구 살림 빙고 활동(월 1회)와 우리 가족 지구살리기 실천 이야기 소개(주 1회)는 지속적으로 진행

운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하여 함께 지구를 살려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인식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음. ▶ 지구살리기축제 이후 가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즐거운 불편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지구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커짐.
--------------	--

3)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가정연계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이 정한 지구를 위한 세계 기념일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불편을 실천한다. ▶ 가족과 함께 날마다 지구 살림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른다. ▶ 공동의 집 지구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다.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연계활동: 지구 살리기를 위한 세계 기념일-지구를 위한 다양한 세계기념일 소개. ▶ 홈페이지 활용하기 / 등·하원 길에 안내하기 세계 물의 날(3.22.) / 어스 아워(3월 넷째 주 토요일, 저녁 8시 한 시간 불 끄기) 지구의 날(4.22.) / 환경의 날(6.5.)
운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살리기 기념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며 실천하는 가정이 늘어남. ▶ 다양한 지구살리기 활동들이 생활화로 지구 살림 교육의 효과가 증대됨.

4) 푸른누리 한마당(만 4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느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안다. ▶아름다운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과 친해지고 우정을 만든다. ▶가족인 모든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선택하는 지구살리기를 실천한다.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명들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법 계획. ▶다양한 생명들을 충분한 탐색을 통해 느끼고 교감하여 친해질 수 있도록 활동 진행. ▶친구가 된 다양한 생명을 지키려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캠페인 활동으로 확장. ▶창조 이야기/ 흙과 나무의 날/ 공기의 날/ 소리의 날/ 물의 날/ 빛의 날/ 거리 캠페인.
운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은 소중한 친구임을 알고 우정을 키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푸른 누리 지킴이로서 소명을 가짐. ▶아름다웠던 지구의 모습을 되돌리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즐거운 불편 운동을 실천함. ▶자연에게 하는 친절은 사람에게 친절하고 돌보는 습관으로 이어짐.

5) 지구살리기 동아리(만 5세)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사물·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다양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와 기쁨을 나눈다.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고 책임감을 기른다.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세 3학년 어린이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스스로 선택하여 어우러진 활동. ▶어린이들은 모든 동아리를 충분히 경험한 후 동아리 선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 선택 ▶에너지 사랑 동아리/ 물 사랑 동아리/ 흙과 나무 사랑 동아리/ 일회용품 이별 동아리/ 감사. 기쁨 동아리. ▶'지구 살리기 축제'와 초등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 ▶학기 말 학부모님들을 초대하여 일 년의 동아리 발표회를 통하여 지구 살리기 홍보.
운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선택한 동아리 활동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구 살리기를 실천함. ▶즐거운 불편을 실천하고 거리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어른들에게도 자극을 줌. ▶다양한 생명과의 깊은 우정 관계를 통해 생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성장함.

4. 사람과의 우정을 통한 평화교육

1) 내가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함을 알기: 특별한 날 생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감사를 느낀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친구의 소중함을 안다.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가 태어난 탄생과정의 신비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 ▶내 이름의 의미와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날아 주시고 길러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한다. ▶내가 소중하듯이 친구도 소중함을 안다. ▶특별한 생일 축하식: 마음의 집에 초대하여 친구에게 전하는 마음의 선물 ▶축복의 인사와 마음의 선물 나눔.
운영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 ▶친구도 소중함을 인식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성장 ▶생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축하받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 성장 ▶생명의 소중함에 대하여 의식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성장

2) 다른 나라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평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 친구들 중 어려운 친구가 있음을 알고 나눔을 실천하고 우정을 맺는다. ▶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한다.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하루’ 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분투’ 프로그램을 통해 각 반에서 한 명의 어린이에게 다달이 25,000원을 모아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에티오피아, 베트남, 필리핀 등 9명의 어린이를 결연하고 있다. ▶ 각 반 어린이들은 결연 친구를 위해 절제, 봉사, 나눔, 절약을 통해 받은 금액으로 성금 모금 ▶ 홈페이지 반별 게시판, 원장의 가정 알림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 진행 과정 가정에 안내 ▶ (가정연계활동) 한 학급 - 한 해외 아동 결연 맺기 프로그램을 부모 교육 때 소개하고 활성화
관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마음을 나누는 태도 신장. ▶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하여 사고 싶은 것 또는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는 힘이 생김. ▶ 부모들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약하고 봉사하고 나누려는 마음이 습관화되어 가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 많이 보임.

3) 사회적 상황과 사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연대를 통한 평화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적인 사건, 다양한 세상의 아픔, 고통, 기쁜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연대감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삶에서 구체적인 나눔을 실천한다. ▶ 사건으로 생긴 자신의 감정을 읽어 내고 표현하며 치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국내적 사건이나 재난이 일어날 때 교육 주제와 연결하여 교육 활동 진행 ▶ 연령별 수준 고려한 활동 진행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축제하는 날 나눔 장터와 먹을거리 장터를 통한 수익금을 나눔 함 ▶ 2014: 세월호 사건 기억하며 지속적인 연계 교육 ▶ 2015: 네팔 지진 사건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금 모으기와 연대하기 ▶ 2016: 세계 평화 축제 리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메달보다 세계 평화 축제의 의미 ▶ 2017: 19대 대통령 선거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일할 분 뽑도록 ▶ 2018: 남·북 정상 회담으로 우리나라 종전과 평화 통일을 위하여 두 정상 응원하기 ▶ 2019: 고성·호주 산불로 죽어 간 생명과 이재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대 활동하기 ▶ 2020: 코로나19 사건 앞에 서로의 마음의 면역력을 위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사랑의 백신 만들기 프로그램, 자연과 생명들에게 용서를 청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로하고 협조 청하기 ▶ (가정연계활동) 등·하원 시간에 부모와 활동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여 부모 참여
양적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의 다양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유아들과 가족들의 관심과 연대성 성장. ▶ 가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으로써 유아뿐 아니라 가족들이 세상의 사건과 연재함. ▶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으로 나누려는 마음 성장.

4) 가족이 함께 하는 감사나눔축제를 통한 평화

목적	자연·사물·사람과의 우정을 통하여 감사와 행복 그리고 평화로 물든다.
-----------	--

활동 단계	활동 명	활동 내용
사전 활동	▶ 유치원: 참여 동의서, 사전 활동 안내 가정 배부 ▶ 가정 연계 활동: 감사 동시 짓기, '고마움 꽃다발' 책자 등	
본 활동	▶ 부모 교육 자리	관계 안에서 감사를 느끼고 전하는 삶의 풍요로움 나누기
	▶ 자연과의 감사나눔 자리	자연과 함께 놀이 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자연에게 감사를 느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
	▶ 사물과의 감사나눔 자리	함께하는 사물의 고마움을 찾아보고 마음을 전하는 자리
	▶ 사람과의 감사나눔 자리	가족,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표현하는 자리
	▶ 나눔의 자리	고통받는 지구 가족을 기억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
	▶ 감사나눔 소리 울림 한마당	감사나눔축제를 마무리하며 자연·사물·사람과의 감사 이야기를 한 마음 한 소리로 모두 함께 난타로 소리 울림을 나누는 시간
	▶ 작품의 자리	가족감사와 반별감사 동시 게시
운영 결과	▶ 축제 설문지(평가지)를 수합하여 학부모 평가 내용을 평가 시 반영함. ▶ 삶 안에서 감사를 느끼고 전하는 모습이 습관화됨. ▶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알아 감. ▶ 감사의 대상이 사람에서 자연과 사물에까지 넓혀져 감.	

5)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활동명	활동내용
2018 남북정상 회담 이야기	1차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 이야기	남북의 역사 알아보기 남북의 현재 관계 이해하기
	남북 정상 회담 응원하기	남북 정상 회담을 준비하는 대통령께 응원 편지 쓰기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하는 성미가족	남북 정상 회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족의 염원을 담은 글 적기
	평화를 위해 노력한 대통령님께 쓴 감사편지	-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을 유치원에서 생중계로 함께 시청하기 - 남북 정상 회담을 이룬 대통령께 감사 편지와 드리고 싶은 상장 만들기 - 남북 정상 회담을 계기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 통일' 4행시 짓기
	2차 5월 26일 남북 정상 회담 이야기- '지금 여기에 평화를' 노래를 불러요	- 5월 26일 이루어진 남북 정상 회담의 의미 알기 - '지금 여기에 평화를'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있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평화를 실천하기
	8월 24-26일 이산가족 이야기	- 이산가족에 대해 알아보고,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느끼기
	3차 9월 18-20일 남북 정상 회담 이야기	-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모습 시청한 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고 실천하기

6) 지금, 여기에 평화를

	활동명	활동내용
평화를 찾아서	평화란?	평화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것 표현한다.
	평화는요	주위에서 평화 찾아본다.
	내가 생각하는 평화	평화에 대한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지금 여기에 평화를	'지금 여기에 평화를' 노래를 배운다.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며	내가 느끼는 평화	친구와 함께 평화의 기도문을 만든다.
	나는 평화를 꿈꿔요	전쟁 중에 있는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내가 가진 평화의 놀잇감	평화로운 장난감으로 놀아요.
	평화로운 장난감을 위한 나와의 약속	평화로운 장난감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할까?
	친구와 함께 평화를 꿈꾸기	친구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해요.
	친구와 함께 올린 공	친구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공을 올리는 놀이
	먼저 손 내밀기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하고 사랑해요.
	친구와 함께라면	친구와 둘이서 한 동작으로 울동해 보기
	친구와 하나 되기	친구와 함께 장애물을 넘어 지시문을 해결해요.
친구와 하나의 소리 만들기	각기 다른 악기로 하나의 하모니 만드는 놀이	
나. 너. 우리	서로 다른 박자와 음색이 어우러져 평화를 꿈꿔요	
지금 여기에 평화를	예수님의 평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 평화의 이야기 듣기
	평화의 인사 나누기	예수님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평화를 주는 말	부정적 언어를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말로 바꾸기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닮아가기
	평화의 성지순례	바다의 별 현양 동산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
	자연과의 평화	자연과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함께 찾기
	사람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함께 찾기
	북한 친구와 평화	북한 친구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기
	가족 평화 신문 만들기	가정연계로 평화를 위한 가족 신문 만들기
	조상님들과의 평화	용산 어린이 박물관에서 조상님들의 평화 느끼기
	평화의 암호 풀이 놀이	한 민족의 평화를 희망하며 평화의 문장 암호 풀이
	평화를 전하는 소리	사물 악기에 평화를 위한 기도와 마음을 담기
	평화 알리기 계획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알릴 방법 토의
	평화 알리기 준비	거리 캠페인을 위한 준비
	평화를 알리는 날	거리로 나가 준비한 메시지 전달하기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	모든 어린이가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 전례

7) 평화통일캠프, 평화캠프

- ★ 평화통일캠프 사전 준비 활동
- 1) 나 자신의 통일(나는 누구인가?)
 - 2) 친구와의 통일(나와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
 - 3) 우리가족의 통일(가정연계학습)
 - 4) 싸웠지만 화해한 기억?
 - 5)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그룹작업)
 - 6) 통일이 되면 나는?
 - 7) 북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

♣ (1997년 평화통일캠프 주제: 하나 되어 나누어요)

활동(시 간)	내 용
모임(09:40-10:00)	운동장에 모임-뒤뜰-현관-체육 놀이실
입소식(10:00-10:30)	입소식(기도, 선서, 원장님 말씀) 오리엔테이션, 각팀 교사 소개, 캠프 주제가 부르기
물놀이(10:30-11:30)	방 정리, 팀가, 구호, 수영복 갈아입기 / 간식
통일영상(11:30-12:50)	A조: 하나 팀. 사랑 팀 - 수영 B조: 평화 팀. 통일 팀 - VTR 상영(통일에 관한 내용)
	A조: VTR. B조: 수영
점심식사(13:00-14:00)	점심 식사 및 설거지
휴식(14:00-14:30)	잠자기
통일 상황놀이 (14:30-17:40)	1. 통일웃놀이 - 성모상 옆 2. 통일암호풀이 - 빨래터 3. 간식(부페) - 운동장(잔디밭) 4. 통일캠프 마이크 완성 - 잔디밭 5. 수영 - 수영장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17:40-18:40)	우리 함께 통일을 향하여
저녁식사(18:40-19:40)	저녁 식사 및 설거지
평가(19:40-20:20)	정리 및 평가
엄마 아빠와 함께 평화의 밤 (20:20-21:00)	- 다 함께 춤을 - 통일을 향한 불 밝히기 - 주제가: 우리의 소원 - 귀가

♣ 2002년 평화통일캠프(주제: 함께 가요 하나 된 세상으로!)

프로그램명(시간)	내 용
통일을 향하여!(12:30-12:45)	▶ 마자렐로 센터 앞 집결→체육 놀이실 입실
여는 자리(12:45-13:15)	▶ 입소식 및 모둠 소개
쉬어가기 하나(13:15-13:45)	▶ 가방 정리, 수영복 갈아입기
몸으로 하나 되기 (13:45-15:15)	▶ 동해에서 서해까지 A조→B조
	▶ 한라에서 백두까지 B조→A조
쉬어가기 둘(15:15-15:55)	▶ 옷 갈아입기, 간식
함께뛰기 (15:55-18:55)	▶ 함께뛰기를 시작하며
	첫째 마당: 아빠 하느님의 마음으로
	둘째 마당: 아름다운 우리 강산
	셋째 마당: 평화의 땅, 비무장 지대
	넷째 마당: 나눔의 장터
	▶ 함께뛰기를 마치며
한술밥 한 식구(18:55-20:30)	▶ 저녁 식사, 짐 정리, 모둠별 평가
엄마 아빠와 함께 평화의 밤 (20:30-22:00)	▶ 여는 마당/평화의 춤/ 통일 빙고 게임/되돌아보기/평화의 불 밝히기
	▶ 간식 및 귀가
닫는 자리(22:00-)	

♣ 2003년 평화캠프(주제: 지금 여기에 평화를!/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프로그램명	내 용
평화를 향하여!(13:10-13:30)	▶ 마자렐로 센타 앞 집결 →체육 놀이실 입실
여는 자리(13:30-14:00)	▶ 시작 예절 및 모둠 소개
쉬어 가기(14:00-14:20)	▶ 가방 정리 및 모듬원과 친해지기
소중한 나(14:20-14:50)	▶ '나'의 사랑스러운 모습 발견하기
어우러지기(14:55-15:25)	▶ 음악을 통한 평화체험
새참(15:30-16:00)	▶ 새참 및 휴식
평화의 함께 뛰기 (18:00-19:00)	▶ 함께 뛰기를 시작하며
	한 걸음: 마음열기
	두 걸음: 손 내밀기
	세 걸음: 하나 되기
	네 걸음: 사랑하기
	▶ 함께 뛰기를 마치며
사랑의 나눔(19:00-20:00)	▶ 짐 정리, 평화콘서트 준비 모듬별 평가, 저녁 식사
엄마 아빠와 함께 평화의 밤(20:00-22:00)	▶ 평화의 춤/ 평화콘서트/ 묻고 대답하고/평화의 불
닫는 자리(22:00-)	▶ 밤참 및 집으로 돌아가기

♣ 2019년 '평화 이야기'와 평화통일캠프

활 동 내 용
활동 1. 내가 생각하는 평화 찾기 활동 2. 우리 주변의 평화로운 모습을 찾기 활동 3. 평화를 상징하는 것 알아보기 활동 4. 평화의 비둘기 접기 활동 5. 평화가 없다면? 토의하기 활동 6.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싶은 것과 끌어당기고 싶은 것 활동 7. 다른 누군가를 위해 평화 빌어주기(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활동 8. 6.25 전쟁 이야기 활동 9. 통일 기차 만들기 활동 10. 북한 친구를 만나면 하고 싶은 것 활동 11. 평화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활동 12. 평화통일캠프 북한과 친해지는 O.X 퀴즈/평화 통일 기차 여행/평화 통일 4행시 짓기 평화는 OO이다/평화의 탑 쌓기/평화 통일의 길 만들기 활동 13. 평화통일캠프 사후 활동 - 내가 찾은 평화 활동 14. 평화를 알리는 거리 캠페인

6) 매월 1회 평화의 기도모임

2005년 4월 3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서거하시면서 만 5세 어린이들은 교황님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교황님의 추억 영상을 보던 중에 “어린이들에게 주신 교황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들에게 세계평화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세계평화를 위하여 매월 한 번 모든 어린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모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중요한 전례입니다. 매월 전례력과 세상의 사건들과 연결하여 진행하며, 현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과 연결하여(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대림 3주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도 중요하게 기억하며 기도 모임 전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나와 너를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생명들을 만나고, 세상을 더욱더 넓게 만나고, 우주를 만나 기도하고 하느님과 모든 우주 가족과 하나로 일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V. 우리와 하느님의 꿈 평화 실현을 위하여

여러 위기와 혼란 한가운데에 있는 현대에 가톨릭 학교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고 더 나아가 하느님의 평화를 심고 가꾸고 나누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군을 배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에서 젊은이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거룩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이렇게 그 거룩함을 깨우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돈 보스코 성인이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라고 말한 교육의 방향은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본질을 알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화해시키셨습니다”(콜로 1,20). 자연·사물·모든 생명·사람 사이의 우정은 하느님의 평화를 심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소중한 하느님의 일군으로서 해야 할 소명입니다.

평화, 미묘한 사이의 균형

목 차

- I. 들어가는 글: '평화'의 소명
- II. 무적의 가톨릭 학교: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 III. 평화 교실의 균형: 적절한 사이사이
 - 1. 믿음, 그분과 그놈 사이
 - 2. 진리, 자유과 두려움 사이
 - 3. 희망, 질문과 정답 사이
- IV. 평화 전달자: 앞을 삶으로
 - 1. 작아도 모델
 - 2. 영혼의 친구
- V. 마무리하는 글: '평화'의 나무

I. 들어가는 글: '평화'의 소명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랑하는 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유언보다도 귀하고
가장 하고 싶었던 소중한 말일 것이다.'*
- '유언보다 귀한 말' 중에서⁶⁾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절절하고 애뜻하였을 말을 건네는 사람을 아직 만나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난 딱 한 사람을 알고 있다. 우리가 믿는,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무덤에서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사랑하며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분의 첫마디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였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분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살아 있는 생명인 우리 인간이 추구할 근원을 알려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화롭기를 절실히 바란다. 그러나 자신의 평화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온 딸과 아들, 바로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평화일 것이다. 나의 유전자를 가지고 나와 닮은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풍부한 역량을 발휘하며 나보다 훨씬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근원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지어 내신 사랑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몸소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만큼이나 제자들의 평화를 바라는 스승의 모습을 본다. 예수를 닮은 스승이 되는 소명을 받아들인 가톨릭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며 참 평화를 전하기를 기꺼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보다 참 스승의 모습을 닮도록 노력하며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평화를 지어 가며 세상의 갇힌 범주를 뛰어넘는 참 평화를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하느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갓 태어난 아이에게도, 사랑으로 충만한 그 부모에게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학생에게도, 평화를 추구하는 교사에게도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고민하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정이다.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선택한 모험을 좀 더 즐겁게 감당하며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톨릭 교

6) 손서정, '유언보다 귀한 말', 가톨릭 신문 민족·화해·일치 칼럼(2017년 11월 5일).

손서정 선생

육 현장에서 어떻게 평화를 가르치고 실천해 나가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려 한다.

II. 무적의 가톨릭 학교: 양날의 칼(Double-edged Sword)

현재 교육 현장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한반도가 겪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정치적인 간절함이 잔뜩 묻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에 대한 안보 교육 일색이던 교육 정책이 통일 교육으로 정착되었다가,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물씬 불어오던 2018년을 지나면서 평화·통일 교육으로 변화되었다. 평화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들이 사용하던 국한된 의미의 평화 개념이 확장되고 평화 교육이 부각되면서 ‘평화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평화’⁷⁾의 개념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적극적인 평화 교육’⁸⁾이 드디어 공교육 현장으로 들어온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평화 교육 포럼을 상설화하여 공개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육부, 전국 단위의 교육청과 학교장, 연구자들이 모여 평화 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반 학교에서는 막 첫발을 디딘 평화 교육을 교실로 도입하기에 아직 역부족인 점이 많다. 더구나 교육의 목적과 방법으로의 평화는 낯선 단어이다.

그러나 가톨릭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미사 때마다 전하는 평화의 인사부터 시작하여 2천 년 동안 간직해 온 그리스도의 평화까지 매우 익숙하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가톨릭 학교는 일반 학교 교육 현장과 무엇이 다른가. 셀 수 없이 많은 학교들이 국립, 공립, 사립 단위의 소속과 설립 주체에 따라 분류되고, 유아원·유치원·초등·중등·고등·대학교까지 아동의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나누어진다. 그중에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 교회가 설립 주체가 되어 모든 연령의 아동과 성인을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톨릭 사상을 근본으로 하여 현재의 세상 안에서 교육이라는 소명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 학교의 목표는 ‘가톨릭’과 ‘교육’, 이 두 가지의 소중한 본질을 동시에 전하여 학생들이 평화를 살아내도록 이끄는 것이다. 특히 교황청의 가톨릭교육성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평화 교육’으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평화의 일꾼’⁹⁾이 되는데 가톨릭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1963년, 요한 23세 교황은 ‘진리, 정의, 사랑, 자유를 토대로 하는 모든 민족의 평화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온 인류가 모든 시대에 걸쳐 갈망해 온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는 하느님의 질서를 존중함으로써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곤고해짐을 강조하여, 하느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평화를 제시

7) Galtung, J.,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 등 역, 들녘, 2000.

국제 평화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요한 갈통(Johan Galtung, 노르웨이 사회학자, 1930-)은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로 보고, 그 폭력들을 구체화하여 질병, 구타, 감금, 살인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Direct Violence)이 없는 상태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사회와 문화에 오랫동안 형성된 구조적인 폭력(Structural Violence)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인 평화’(Positive Peace)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8) 손서정, ‘적극적인 평화 교육’을 고민하다! -분쟁과 평화 교육에 관한 고찰, 2019.: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2019 평화 교육 포럼: 평화 교육, 미래를 열다’에서 발표한 제1세션 발제문에서 ‘적극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적인 폭력을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실천력을 지닌 ‘적극적인 평화 교육’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9)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봉헌 생활자와 교육 사명: 성찰과 지침(2002.10.28. 발표), 78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교황 문헌과 교황청 문헌.

한다.¹⁰⁾ 가톨릭 학교는 이처럼 하느님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 두 가지의 질서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화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탁월한 기관이다. 곧 일반 학교가 세상의 질서라는 칼날을 지녔다면, 가톨릭 학교는 하느님의 질서라는 또 다른 예리한 날을 지닌 양날의 칼을 쥐고 평화를 추구하는 곳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대적할 것이 없는 하느님의 섭리를 통하여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교육을 펼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가톨릭 학교는 무적의 학교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명으로 하는 가톨릭 학교의 평화 교육은 어디선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다. 인류와 종교의 역사만큼 깊게 고민하던 평화를 드디어 세상과 함께 펼칠 새로운 기회, 무적의 교육현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교육 현실이 어릴 때부터 대학 입시 위주로 향하는 척박하고 협소한 환경에서 가톨릭 학교의 설립 목표를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힘든 심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는 가톨릭 학교가 양날의 칼을 지녔기 때문이다.

예리하고 효과적인 양날의 칼을 손에 쥐어 평화 교육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양날의 칼은 칼자루를 쥐는 사람이 잘못 휘두르면 스스로 베일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아무리 무적의 힘을 지닌 양날의 칼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칼을 쥐는 사람이 적절한 균형을 잃으면 스스로를 해치고 더 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톨릭 사상과 현실 교육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가, 외줄 타기처럼 어려워 보이는 그 균형감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칼날을 쥐는 교육의 주체들이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느냐에 따라 가톨릭 학교에서 평화 교육의 성취 여부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10) 요한 23세,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4.11.
<http://www.cbck.or.kr/Documents/Pope/Read?doc=400215&doctype=1&gb=T>

III. 평화 교실의 균형: 적절한 사이사이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동안 분단 현실의 한반도를 먼저 떠올린 이유는 전쟁과 폭격으로 가장 근원적인 생명을 잃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뼈아픈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다. 굳이 일제 강점기의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과 같이 거리가 먼 역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속된 분단 체제의 폐해와 악용 때문에 3년 전만 하더라도 핵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던 기억이 있다. 올해에는 그보다 더욱 실제적인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실감하며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의 평화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가 늘어났다.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자체적인 격리와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통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류는 깊은 성찰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더 늘어난 가정 폭력의 통계도 보고된다.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에도 학업과 교실 내의 관계에서 또 다른 갈등들이 생겨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데 해결할 과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 끝없는 삶의 여정에서 평화의 감수성을 지니고 매 순간에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평화’¹¹⁾를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를 근원에 둔 가톨릭 학교의 사명일 것이다. ‘가톨릭’(Catholic) 학교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음으로써 날마다 교실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내며 더욱 풍성해진 평화의 현장을 만들 수 있다. 더불어 현재의 세상에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¹²⁾주는 교육의 역할을 ‘보편적이고 타당’(catholic)하게 감당해야 한다. ‘가톨릭’과 ‘학교’라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맛깔나게 요리하여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톨릭 학교, 그래서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학교, 그런 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실천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실천하는 것이 가톨릭 학교의 사명일 것이다. 어떻게 가톨릭 학교의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평화를 듬뿍 느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묘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교실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갈 주체들인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적절한 균형 잡기를 통하여 스스로 해치는 칼날이 아닌 예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양날의 가치를 찾아보려 한다.

1. 믿음, 그분과 그놈 사이

그분과 그놈의 차이점은 그분은 무엇을 하든 항상 믿을 만한 분이고, 그놈은 하는 행동이나 말까지 참 믿기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신뢰와 관계되는데, 여기에 순환적인 함정이 있다. 내가 그분으로 믿으면 그놈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놈일지 몰라도 나에게만은 그분으로 남고자 스스로 안간힘을 쓴다. 한편, 세상에서 받드는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뭔가 야욕과 탐욕이 넘실대고 음침함이 있는 게 아무리 봐도 영

11) Galtung, J., & 위의 책.

12) 교육의 사전적 정의, 표준 국어 대사전.

몹쓸 놈이다. 그분은 결코 내게 그분이 되기는 글렀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그놈으로 남을 뿐이다. 그분과 그놈의 본질적인 차이는 결국 믿음이다.

교육에 있어서 기본은 믿음이다. 정치적인 평화 담론에 있어서도 역시 신뢰 프로세스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상대에 대한 믿음, 교사는 학생을 믿고, 학생은 교사를 믿어야만 교육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원리나 고차원적인 지식을 교실로 가져와도 실체가 의심스럽기만 하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교육은 어느 학교 현장에서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가톨릭 학교에서는 더욱 근원적인 믿음이 존재한다.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개개인에 대한 믿음이다. 곧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된 나의 아이를 믿는다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실재인 인간 그 자체로 믿어 주는 것으로 충분한 출발점이 된다. 이에 선순환적인 믿음의 신비가 적용이 되는데, 내가 믿는 만큼 아이는 자라난다. 하느님을 믿고 온전히 맡길 때 미처 바라지도 않던 성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과 같이, 아이의 성장도 온전히 믿어 줄 때 활짝 열려 무럭무럭 자라난다.

이렇게 한없이 믿기만 해도 모두 다 해결된다면 어려울 게 없을 텐데, 무조건 믿는다고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세상이 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느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그 모습을 완성하지 못한 미숙한 인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숙과 완성을 찾는 길 위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오만한 확신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을 믿되 자만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미묘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만심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신감의 균형 잡기를 통하여 내가 그분과 그놈 사이의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 교사 자신과 가르치는 학생이나 교사가 배우고 지도받는 또 다른 교육자 또는 상급자에게도 해당이 된다. 인간으로 존재하였던 온전한 참 스승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면 나 스스로에 대한 과신으로 자만하거나, 한 인간을 신적으로 미화하여 오류에 빠지는 일도, 누군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파멸로 이르게 하는 죄악도 행하지 않을 수 있다. 교사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근원으로 하되 스스로 끊임없는 성찰의 과정에서 성장해 가며,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아이들 스스로가 고유한 품성과 능력을 지녔음을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노력하는 교사를 통하여 그리고 부족한 틈을 채워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평화 교육의 바탕인 평화로운 교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2. 진리, 자유과 두려움 사이

자아와 타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사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가지고 항상 모든 상대에

게 열려 있다. 상대를 향하여 열려 있다는 것은 벽을 쌓거나 어느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보다 상급자로 있는 평가자나, 교장이나 교감, 특히 교회의 주교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두려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부족한 인간이고 서로 보완해서 나아가야 할 작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 없는 용감한 교사가 되어야 학생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

인간 자체를,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명성과 권위를 두려워하는 순간, 나 자신의 생각과 이상은 그들의 생각과 이상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오류도 답습하게 된다. 교사 스스로가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보여야만 아이들 역시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 진리를 추구하는 자유를 선택할 것이다. 교사가 억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두려움을 심어 주고, 다른 상급자나 동료 교사의 이목과 질타를 두려워한다면 아이들도 역시 교사의 평가나 주변 친구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내면에 지닌 진정한 빛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두려움의 틀은 아이들 역시 보잘것없는 우리만큼 밖에 자라지 못하도록 한계를 긋고 가두어 두는 셈이다.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 나, 내면의 교사, 오직 진리이신 스승 그리스도뿐이다. 아이들도 역시 자신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내면의 갈등을 통하여 성장해 가면서 더욱 성숙한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씩 발견하게 된다. 교사도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위치의 평생 학습자이다. 스스로를 계발하고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하느님 모습의 본성을 발견하고,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 스스로를 고양시킬수록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세상에서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며 진리에 대한 강렬한 경외심을 가지고 배워갈 때 교사와 학습자는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교사의 틀을 넘어 더 위로, 진리의 내면을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규정된 틀을 벗어나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학습자는 탐구하고 싶은 열정을 품고, 자신을 당기는 주제에 몰두하게 된다.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톨릭 학교가 더 많은 학습자들과 함께 꿈을 키워 가려면 원칙적인 교리나 피상적인 지식만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높은 수준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 주어야 한다. 세상의 발달한 과학과 최첨단의 지식에 통달해서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세상을 넘어서는 진리의 발견으로 한 차원 더 깊이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명철한 이성을 촉진시키는 더욱더 전문적인 교수 설계가 동반되어야 한다. 진리의 하늘을 향하여 치솟는 자유로움을 맘껏 펼칠 수 있을 때, 우물 안의 개구리같이 갇혀 있는 거짓 평화를 넘어서서 참 평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희망, 질문과 정답 사이

교실의 주체인 우리, 교사와 학습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은 서로에 대한 믿음, 상대의 지력과 내면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서로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함께 나눌수록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신념과 두려움 없이 탐구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 한계와 제한, 정답을 이미 정해 두고 있는 교실은 이미 제시된 이론과 지식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희망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학생이 질문을 하는 순간, 학생의 질문에 답하기에 급급하기보다 학생에게 무엇이 어려운 지점인지 파악해야 한다. 공감을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문의 80% 이상은 풀린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한번 더 스스로 질문 사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답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곧장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유혹을 인내하면서 열린 결말을 가진 자세와 표정으로 학생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동시에 교사가 제시하는 방향의 정답이 참된 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새로운 과학이나 또 다른 지식과 연구 결과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리의 하느님께서서는 원활히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이미 주어진 정답에 응답하라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질문을 받을 때나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열려 있어야만 더 큰 진리로 다가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질문이 없어지고 줄어든다는 것은 탐구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졌음을 말한다. 흔히 해소된 경우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강요받는 사상이나 교육 형태에 순응함으로써 본인의 질문을 포기하여 자신의 지평을 넓힐 기회를 차단한다. 상대인 교육자가 경청하여 들어주고 어떤 질문도 충실하고 진지하게 받아 주어서 서로 더 큰 해결을 발견하리라는 희망이 없다면, 정답을 벗어나는 어리석게 보일 질문을 삼가게 되고 앞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결국 학습자는 주제에 대한 열정을 잃어 가고, 그 주제에 대한 앞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앞의 총체가 삶으로 연결되어 확립되는 정체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므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전반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는 것이다. 교사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듣고 인정해 준다는 희망, 정답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각자의 열린 답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다. 열린 답안,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소명을 인정하는 것은 가톨릭 학교의 소명과도 맞아 떨어진다. 믿음과 진리가 충만한 평화로운 교실에서 희망을 싹틔워 성장해 갈 때 학교를 떠난 삶에서도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IV. 평화 전달자: 앎을 삶으로

평화가 넘치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만큼 서로를 믿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자유가 있다. ‘내면의 교사’인 주님을 통하여 발현되는 자아를 존중함과 동시에 외부의 억압이나 힘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음으로써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열정을 얻게 된다. 언제나 질문할 수 있고 제약되지 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하는 희망이 가득한 교실, 이 안에서 교사와 학생은 무한한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탐구하면서 마음껏 지성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앎으로 충만해진다.

진실의 앎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앎을 삶으로 구현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미리 살아온 선배로서 앎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전달자, 곧 평화의 메신저가 된다. 교단에 선 교사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때로는 숭배할 대상인 무대에 선 배우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교사 역시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학생들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고, 두려워하여 굴복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주제에 대하여 무지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다. 무엇보다 앎을 삶으로 온전히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하는 부족함을 만날까 두렵다. 그러므로 교사는 언제나 스스로를 미리 돌아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꾸며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무나 택하는 안정된 ‘꿀 직업’이 아니라, 소중한 아이들의 눈과 귀가 쏟아내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 십자가이며 거룩한 소명이다.

1. 작아도 모델

모델은 보통 키가 매우 크다. 일반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목이 아프도록 젓혀서 올려다 보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야만 옷을 입어도 테가 나고 소비자들의 눈에 띄어 상품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키가 작아도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유난히 찢어진 듯한 눈이 돋보여 매력적이라든가, 걷는 맴시가 특이하여 인상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패션쇼의 런웨이(runway)에 서기도 한다. 런웨이 무대에 서지 않더라도 어떤 한 부분이 돋보여 손이나 발 등의 부분만 찍어 광고하는 모델도 있고, 획일적이던 미의 가치가 점점 개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하면서 키가 커야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편견도 줄어들고 있다. 부분적인 개성을 발휘하는 모델들은 자신이 키가 작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발휘함으로써 모델이 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삶의 본보기가 된다. 누군가에게 삶의 모델이 되는 교사는 뿌듯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톨릭 학교는 가장 큰 스승, 완벽한 롤모델이 있다.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다다를 수 없게만 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닌 흠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에서 주제의 과목만 제대로 가르쳐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톨릭 학교에서는 신성을 지닌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서 지성까지 겸비해야만 하니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 보아야겠다고 기어코 나무까지 기어오른 키 작은 죄인, 자캐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본다. 이는 죄인도, 키가 작아도 예수님을 따르고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심이 아니었을까. 그를 통하여 모자라고 부족한 다른 죄인도 그분의 거룩한 길을 함께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처럼 단점이라고 여기던 교사의 부족한 면모는 때로는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이때 무조건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키가 작다는 나의 단점을 숨기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교사 역시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심지어 나의 치부라고 생각한 것들을 드러낼 때 학생들은 오히려 마음을 연다.

그제야 비로소 교사는 무대 위에만 있는 스타가 아닌 스캔들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는 삶의 문제나 배움에 있어서 힘든 순간들이 나만의 부끄러움이 아닌 모든 인간, 특히 교사 또한 지니고 있음을 고백할 때 학생들은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한다. 굳이 작은 키를 늘리려는 억지스러운 고집스러움보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지점에서 노력하며 배워 나가려는 태도, 그 자체가 교훈이 되고 진정하고 구체적인 작은 삶의 모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딪치고 만나는 고통의 순간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여 평화를 살아내고 있는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노력이 맺어 준 작은 열매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상황을 토로하며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그들은 우리에게 기꺼이 와서 친구가 되고 위로자 예수가 되며 우리를 뛰어넘어 스승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작게 느껴져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2. 영혼의 친구

교사가 무대의 탈을 벗고 기꺼이 내려왔다면,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학생들의 옆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먹고 함께 걸었던 그 길처럼 학생들이 평화를 찾아 걸어가는 그 길에 기꺼이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길에서 교사는 교실과 교과에 갇혀 있는 학생의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다. 온전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가 가고 있는 길에 도움이 필요한 것과 응원할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진리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과 삶을 긍정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활력을 일깨우고 이끌 수 있는 준비를 잘 갖춘 친절한 대화 상대자,'¹³⁾ 곧 영혼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13) 교황청 가톨릭교육성, 봉헌 생활자와 평신도의 공동 사명인 가톨릭 학교 교육(2007.9.8. 발표), 『가

“교사가 교단 위에만 서 있다면, 그는 다만 교사일 뿐 그 이상은 아닙니다.”라며 항상 학생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였던 요한 보스코 성인은 가톨릭 교사의 역할은 일반 교사와는 다름을 보여 준다. 그는 교실보다 운동장에서 쉼과 놀이의 시간에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놀이 시간을 함께하면 아이들은 교사를 친구처럼 여기게 되어 친해지고, 친해짐은 사랑을, 사랑은 믿음으로, 믿음은 또다시 마음을 활짝 열게 하므로 함께한다는 것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다 같이 함께하면서도 따로 또 온전히 함께하고자 개인적인 속삭임과 일대일의 만남으로 초대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¹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상담이라는 틀을 통하여 따로 만남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한 상담이라는 단어보다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나눔을 통하여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현재의 인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처음 시작이 어색하다면 몇몇 소그룹 활동으로 시작하고 점점 깊이를 가지며 개인적인 만남도 병행해야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스스로 얘기하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립하는 인식과 순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 매개체를 찾는 것이 어려워 시도하지 못할 뿐이지, 일단 실마리가 풀리면 마구 풀려나와 타래를 드러내는 실타래와 같이 대화는 전개된다. 그 실마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사이다. 누구든 만나야 알 수 있듯이, 깊이 만나야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서로를 알아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줄 수 있듯이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 줄수록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그리고 깊이 알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 그렇게 교사와 학생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 ‘영혼의 성실한 친구’¹⁵⁾가 되어 간다.

그러나 이때 지켜야 할 확고한 규칙과 무한한 포용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잘못을 지탄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동시에 친구와 진정한 관계를 맺는 친구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포용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다만 나와 똑같이 잘못도 하고 부족한 작은 인간임을 알기 때문에 무한히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같이 자라간다. 그러므로 친구의 자리를 택한 교사의 학생은 자신을 질책하기보다 이해하고 같이 감당하려고 함께하는 친구가 된 교사에게서 오히려 영혼이 찢린 듯이 강한 깨달음을 얻어 서로에게 영혼의 친구가 된다.

톨릭 교회의 가르침』,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교황 문헌과 교황청 문헌, p. 392.

14) 정현숙(Hyun Sook Chung), 요한 보스코의 예방 교육과 상담, 종교 교육학 연구, 18, 211, 2004.

15) 이미영 L. M.-Y., 하느님을 관상하는 이콘: 예방 교육 영성, 종교 문화 학보, 10, 79-123, 2013.

V. 나아가는 글: '평화'의 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이사 61.3)*

가톨릭 학교의 교사들은 평화라는 열매를 맺는 참된 나무이다. 아이들은 참된 나무에 튼튼히 매달려 있을 때 평화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달려 열매가 된 것처럼 아이들은 교사의 나무에 의지하고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익고 다시 땅속으로 묻힌 평화의 씨앗이 되어 스스로 나무로 자라나 몇 배나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자신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참되고 튼튼한 나무가 되려면 하늘의 빛도 받아야 하고,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박아 땅속의 양분도 잘 빨아들어야 한다. 물도 때맞추어 받아 마시고 적절한 온도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끔 잊어버리는 공기야말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인간의 성장 과정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평화의 나무로 성장해 가는 가톨릭 교사들에게 공기처럼 늘 함께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자 우리에게 보내 주신 성령이시다.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는 그 안에서 면면히 전해오는 문화와 새롭게 쇄신되는 전문적인 지식의 양분을 끊임없이 빨아들이며 빗처럼 쏟아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우리 스스로 더욱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려면 조절해야 할 것이 온도이다. 온도는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아야 하고 적절해야 하는데, 때로는 더 뜨겁게 때로는 더 냉철한 기운이 생장에 도움이 되듯이 상황에 맞는 온도를 찾아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온전한 믿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희망을 품고 함께하는 사랑으로 열매를 키워 내는 평화의 나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의 균형을 선택하는 가톨릭 학교는 평화의 열매들을 키워 내는 교사, 곧 평화의 나무가 가득한 공간이 될 때 세상에 참 평화의 씨앗을 점점 더 퍼뜨릴 수 있을 것이다.